협회소식

일본지역경제지 $\langle I-B \rangle$ 취재차 방문

지난 4일 일본 후쿠오카 지역 경제지 《I-B》에서 취재차 협회를 방문했다. 이번 취재는 일본 경제의 현황과 주변 경쟁국의 상황을 통하여 일본 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고자하는 취지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들은 특히 "한국 벤처기업의 약진을 소개하기 위해 협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회 오형근 전무는 협회를 "지난 8년간 국내 벤처산업의 산증인"이라고 소개하며 "협회는 앞으로도 벤처 기업간의 교류와 벤처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에 열린 'VENTURE KOREA 2002'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침체된 벤처업계의 재도약을 위하여 진행했던 3일간의 일정을 자세히소개했다.

현재 벤처산업의 현황에 대한 질문에서는 "침체된 벤처업계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글로벌화를 통한 수출 실적에 크게늘고 있으며, 협회 자체적으로도 윤리 경영 전파와 나눔의실천을 통하여 업계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벤처기업의 토착화와 글로벌화를 실현하여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벤처파워를 키울것"이라고 다짐했다.

취재단은 일본 큐슈 NBC와의 정기 사업교류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협회는 2001년부터 양국의 중소 벤처기업 사업교류를 통한 우호증진과 경제교류를 위하여 큐슈 NBC와 합의서를 교환하고 올해 'VENTURE KOREA 2002' 행사에도 초청한 바 있다

내년 3월에는 큐슈 NBC 단체 및 소속 회원사를 서울로 초청하여 '2003 제2회 정기교류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양 단체간의 지속적인 사업교류를 모색하고 나아가 정보 교류의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 일본 경제지 《I · B》에서 취재를 하고 있다

지회소식

전북지역 협회

도내 벤처기업 수출 호조

도내 벤처기업들의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전북지부(지부장 김연식)에 따르면 "도 내 벤처기업들의 수출규모는 아직 미미하지만 전반적 인 수출부진 속에서도 급신장하고 있어 향후 도내 수출 의 견인차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는 것.

실제로 도내 벤처기업의 수출 현황을 보면 지난 10월 말 현재 총 3천 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보다 무려 55.2%가 증가했으며 도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 중도 지난해 1.4%에서 2.4%로 뛰어 올랐다.

이처럼 도내 벤처기업들의 수출이 업체수에 비해 그 규모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은 개별 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공략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들의 수출을 더욱 늘리기 위해서는 벤처 수출업체 확대 등 기반 확충과 업체들에 대한 관련기관의 시장개척 등 해외마케팅 지원이 강화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 · 경북지역 협회

올해 '이노비즈' 19개사 선정

대구·경북지역에서 19개 업체가 '이노비즈'에 선정됐다. 특히 올 상반기에 선정된 전국 이노비즈 368개 가운데 대구·경북지역의 업체들이 1위와 3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노비즈' 란 중소기업청이 기술혁신성이 뛰어난 기업을 선정해 정책자금을 지원해, 선진국형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노비즈에 선정되면 업체당 최고 20억 원까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이노비즈 전문펀드'를 통해 업체당 20억원까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이노비즈에 대해 운전자금을 1 억원까지 신용보증해주고 3억원까지는 약식평가를 통 해 지원해준다.

이와 함께 기술개발사업이전, 개발기술사업화, 해외 규격인증, 경영컨설팅, 기술지도, 해외자본유치 등 다 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